

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난 中品磁器所에 관한 研究

-于下里 窯址를 中心으로-

The study on Ceramic Kilns for Common Qualities Based on the Sejongsillokjiriji

- Focused on Woohari Kiln Site -

주저자 : 김종태 (kim jong-tae)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공예디자인학과 교수

이 논문은 2004학년도 청주대학교의 학술연구조성비(일반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서론

2. 지리·역사적 배경

- 2-1. 고문헌의 기록들
 - 2-1-1. 『世志』의 자료
 - 2-1-2. 『慶志』의 자료
 - 2-1-3. 『續誌』의 자료
- 2-2. 지명고증의 근거
 - 2-2-1. 『世宗實錄』 「地理志」
 - 2-2-2. 朝鮮後期地方地圖 慶尙道篇
 - 2-2-3. 商山地圖

3. 기존연구에 근거한 우하리

4. 유물의 실증적 고찰

- 4-1. 유물의 실측도면

5. 우하리窯址의 현황과 경영적 특성

- 5-1. 조사경위 및 현황
- 5-2. 경영적 특성

6. 결론

참고문헌

(要約)

수습유물 및 문헌기록의 분석을 통해 우하리 요지는 세종실록지리지상의 중품요지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곳은 세종 당시의 중품생산지인 공성현 원동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품자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지일 뿐만 아니라 한국도자수공업사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출토 자편들의 대부분은 生活容器들이다. 특히 “勝”자가 흑상감 된 대접편이 출토됨으로서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즉 우하리 요지는 세종 당시(1420년대) 음식을 관장하는 중앙 관청의 하나인 사선서(司膳署)에 공납(貢納)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던 곳이다.

(Abstract)

We could understand that Woohari oven place is the main place to create important ceramic from Sejongsillokjiriji through the research on the collected remains and books. It was very important founding to understand The history of Korean ceramic industry as well as the special feature of the valuable ceramic in Chosun Dynasty because this place is considered as the original place for center of creating valuable ceramic which called Gongseunghyun during the King, Sejong.

Most of the unearthed pieces are containers for living. Specially, it shows clearly about this thought after we found a piece of a soup bowl which has the black letter “Seon”. So Woohari Kiln is an official place to manage food during the King, Sejong(1420') which took care of tribute for one of Sasunsa.

(keyword)

Sejongsillokjiriji, Woohari Kiln, bowl, Sasunsa.

1. 서론

우하리 요지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우하리 37번지 장수황씨 제실(歸厚齋)이 있는 곳이다. 우하리窯址에 관한 학술적 연구 또는 공식적인 조사·보고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 부분의 부재는 정확한 자료(명문 등)를 찾아내는 일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문제들은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급기야 '주요 문화자료 방치'라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있었지만 이렇다할 결과를 찾아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만 金世光의 연구²⁾ 즉 조선 초 최고의 上品 청자를 생산하던 상주지역 「전통도자의 생산과 수요」- "당시의 도자수공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하리 일대가 15세기의 粉靑沙器를 生産했던 지역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1999년의 이 연구는 우하리에 관련된 숙제를 명확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불씨를 당기는 동인을 가져와야만 했다.

우하리 요지는 14세기 이후 상주지역이 專門의生産技術水準을 갖추고 있었던 시기에 운영된 소규모 자기소이다.

이미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듯이³⁾, 14세기이전에서부터 초기에 이르는 시기는 지나친 수취관계로 인한 공급구조적인 제약하에서도 交換·去來를 위한 도자수공업으로 발전하고 있던 시기였다. 강제수납 등 「經濟外的強制」는 권력형부조리를 낳고, 이로 인한 고려왕조의 구조적 모순은 자기 굽는 일을 전업으로 삼는 장인들의 生産意慾低下와 유망현상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결국 장인들의 기술, 생산능력에 비해 도자요지는 더 이상 확산될 수 없었으며 더 이상의 생산 활동에 대한 진전을 보지 못하였던 시기이다.

14세기이후 이르러 침체되어 있던 도자수공업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즉 전통도자기 생산기술(번조기술)의 변화와 민영수공업의 발전이 그것이다. 그 예로는 '눈베기자기'의 출현과 粉靑沙器生産窯址의 확산이 대표적이다. 분청사기는 조선전기의 매우 특색 있는 도자기로서 14세기에 출현, 고려말기의 퇴락한 상감청자기법으로부터 출발하여 세종대에 기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세조대에 이르러 성장기를 맞이하였다가 16세기 전반 이미 백자에 흡수·소멸되기 시작하여 16세기 중반 이후에는 그 생산이 거의 끝났으리라고 본다. 즉 발생으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약 200여 년간 생산되었다. 이 시기에 분청사기의 생산이 주를 이루었으며 전통도자수공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우하리 요지는 이 시기에 상주의 어산리(세종실록지리지 상의 북추현리), 상판리(세종실록지리지 상의 동기미외리)와 함께 대표적인 요지로서 上品의 분청사기를 생산하던 요지였다. 우하리는 바로 여기에 편승되어 있었던 것이다.

2. 지리·역사적 배경

경상북도 최북단의 북서쪽에 위치한 상주시는 경·위도 상으

로 동경 128°20' 28"~127° 47' 55", 북위 36°14' 06"~36° 39' 14"이다. 상주시의 경계는 동쪽으로 낙동강이 흘러 예천군·의성군과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충북 보은군·영동군, 남쪽은 김천시와 충북 영동군, 북쪽은 경북 문경시와 충북 보은군과 인접하고 있다. 상주시의 서쪽은 소백산맥이 뻗어 영남과 강원·호남·호서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은 낙동강 상류를 따라 분지와 저지가 발달된 西高東低의 지세를 이룬다. 청리면·공검면·공성면·낙동면에서 비교적 넓은 들판이 있으나 그 외 지역은 대부분 산간지대이다. 또한 내륙산간 분지에 자리하고 있어 대륙성 기후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연평균 기온은 12.7℃, 강수량은 1,050mm 정도이다.⁴⁾

水系는 크게 금강수계와 낙동강수계로 구분된다. 금강수계는 石川이 화동면에서 발원하여 礪溪川을 合水해 錦江에 유입되고, 낙동강 수계는 利安川이 속리산 남쪽에서 발원해 문경에서 남류한 穎江과 합쳐져 낙동강에 유입된다. 또 北川이 내서면에서 발원해 공성·청리·외남면에서 발원한 屏城川과 합쳐져 낙동강으로 유입된다. 그리고 하천유역에는 곳곳에 비옥한 퇴적평야를 일찍부터 사람들이 정착생활하기에 좋은 입지로 제공되어 왔다.

이러한 상주지세에 대해 李重煥의 『擇里志』에는 "상주는 일명 洛陽이라 하고, 조령아래의 큰 도회이다. 웅대한 산세와 넓은 평야 그리고 북쪽은 조령에 가까워 충청, 경기와 통하고, 동쪽은 낙동강에 임하여 육운과 수운이 다 남북으로 통하여 수륙교통에 요지를 이루어서 貿遷交易에 편리하므로 부자도 많고, 이름난 학자와 높은 관리도 많다."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아 정착했던 국가이전의 역사는 낙동강, 이안천, 병성천 지역에 산재하는 舊石器 및 新石器文化遺蹟, 支石墓, 生活遺蹟이 있고, 안정된 국가체계가 성립될 무렵에 형성된 古塚·古墳과 城址, 生活遺蹟이 있다. 또 삼국, 고려, 조선시대의 국가체제 하에서는 山城, 官衙址, 生活遺蹟을 비롯해 文鄕으로써 향교, 서원, 서당과 士族의 宅宗과 민가도 많이 남아있다.⁵⁾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尙州牧은 동쪽으로 比安縣 경계까지 67리, 남쪽으로 善山府 경계까지 39리, 同府 경계까지 40리, 金山郡 경계까지 47리, 서쪽으로 충청도 보은현 경계까지 70리, 북쪽으로 함창현 경계까지 29리 그리고 서울까지 4백리이로서 그 범위가 가히 크다.

건지연혁을 살펴보면 상주군(사벌국, 사불국, 상주, 상락, 상산, 귀덕군)은 경상북도 6시 24군의 하나, 본래 삼한 때 사벌국 또는 沙弗國이었는데, 신라 제 12대 첨해왕이 취하여 沙伐主를 삼고, 제 23대 법흥왕이 주를 폐하여 軍主를 두었다. 제 24대 진흥왕이 주를 폐하여 上洛郡으로 하였다가, 제 31대 신문왕이 다시 사벌주로, 제 35대 경덕왕이 상주로, 제 36대 혜공왕이 다시 사벌주로, 고려 태조 23년(940)에 다시 상주로 고쳤다. 그 후에 安東都護府라 하였다가, 제 6대 성종 2년(983)에 13牧을 두었고, 같은 14년(995) 節度使를 두어 歸德軍이라 호를 하였고, 제 8대(1014)에 尙州按撫使로, 같은 9

1) 우하리 粉靑沙器窯址 위치도 참조

2) 김세광, 「尙州의 陶磁生産과 窯址」, 尙州文化叢書第3輯, 1999.

3) 金世光의 前掲書.

4)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靑里遺蹟 發掘調査 概報II, 1997.4, p3.

5) 尙州市·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尙州市文化遺蹟分布地圖, 2002, p16.

6)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IV, p. 48

년(1018)에 다시 상주목으로 고쳤다. 조선 태조 원년(1392)에 觀察營을 두고, 제 3대 태종 8년(1408)에 都觀察使로 목사를 겸하게 하였다가, 같은 10년(1410)에 목사를 따로 두었으며, 제 4대 세종 31년(1449)에 비로소 鎭을 두어 목사로 右道兵馬節度副使를 겸하게 하였다가, 곧 폐지하였다. 제 14대 선조 29년(1596)에 관찰영을 대구로 옮기면서 그대로 상주목이 되어 內東, 中東, 丹東, 丹南, 丹西, 丹北, 長川, 內南, 外南, 靑東, 靑南, 功東, 內西, 牟東, 牟西, 化東, 化西, 化北, 內北, 中北, 外西, 外北, 銀尺, 永順, 山東, 山南, 山西, 山北의 30동리를 관할하였다. 고종 32년(1895) 지방 관제 개정에 의하여 단동, 단남, 단서, 산서, 단북의 5면은 문경군에 각기 넘겨주고, 나머지 23면을 관할하다가,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함창군의 현내, 동면, 북면, 상서, 수상, 수하의 6개 면 전부를 병합하여, 상주, 사벌, 낙동, 청리, 공성, 중동, 모서, 공검, 함창, 이안의 1읍 17면, 237개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동쪽은 예천군과 의성군, 남쪽은 선산군, 금릉군과 충청북도 영동군, 서쪽은 충청북도 옥천군과 보은군, 북쪽은 문경군에 닿는다.7) 이러한 상주는 내륙에 위치하면서도 낙동강유역의 발달된 농경문화와 낙동강을 이용한 수운과 소백산맥을 통한 육로가 연결되는 지리적 여건으로 국내의 정치·경제·군사적 변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왔으며, 현재에는 1986년 상주시로 승격되고, 1995년 상주시와 상주군이 병합되어 오늘에 이른다.8)

2-1. 고문헌의 기록들

주된 자료는 『世宗實錄地理志(이하 世志)』, 『東國輿地勝覽(이하 勝覽)』, 『慶尙道地理志(이하 慶志)』, 『慶尙道續撰地理誌(이하 續志)』 등이다. 이 고전기록(사료)들에 의하면, 당시 도자기소의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각 지방 토산품물에 대한 기록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훌륭한 활용가치를 지닌 사료라고 생각된다.

2-1-1. 「世志」의 자료

먼저 1454년(단종 2년)에 편찬된 『世志』⁹⁾는 世宗의 命에 의해 1424~1432년 사이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1454년 『世宗實錄』의 편찬과 함께 간행된 것이다. 『世志』는 1424~1432년 世宗의 命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이 기간에 실제 자기가소가 운영되고 있었음을 대변해 준다. 즉 世宗 6年 11月의 丙戌條의 “……召大提學 卞季良日 故老漸稀 不可無文籍 本國地志及 州府郡縣 古今沿革 俾撰以觀……”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世志』는 세종 6년(1424)부터 그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확히 1424~32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당시 324개의 도자기소가 실질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世志』에는 당해시기에 생산 활동을 한 전국 도자기소의 위치와 품질을 기록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도자기소가 있는 주, 군, 현과 그 품질의 상, 중, 하만 기록되어 있을 뿐, 각

자기소의 경영특성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시의 양상을 파악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기록된 자기소의 분포도는 곧 그 지역의 도자기소를 경영하기 위한 입지임을 잘 나타내 주기 때문이다. 기록된 자료들을 磁器所와 陶器所별로 나누어 집계한 것은 [표 1]과 같다.

[표 1] 「世志」의 全國 陶磁器所 位置와 品質

地域 區分	京畿道				忠清道				慶尙道				全羅道			
	上	中	下	無	上	中	下	無	上	中	下	無	上	中	下	無
磁器所	1	0	12	1	0	12	11	0	3	8	27	0	0	15	13	3
小計	14				23				38				31			
陶器所	0	6	12	2	0	6	31	1	0	6	28	0	0	8	23	8
小計	20				38				34				39			
計	24				61				72				70			

區分	地域	黃海道				江原道				平安道				咸吉道			
		上	中	下	無	上	中	下	無	上	中	下	無	上	中	下	無
磁器所	品別	0	6	6	0	0	2	2	0	0	2	1	0	0	0	2	3
小計		12				4				13				5			
陶器所	品別	0	5	12	0	0	0	10	0	0	1	10	1	0	0	7	8
小計		17				10				12				15			
計		29				14				25				20			

計			
上	中	下	無
4	45	84	7
140			
0	32	133	20
185			
325			

出處: 『世志』, 「土産品物」條.

당시 전국의 총 324個所 중 자기가소가 139個所, 陶器所가 185個所로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자기소 중 대부분이 남쪽 4도에 집중되어 있다. 즉 平安·咸吉·黃海의 30個所를 제외한 나머지 295個所는 南韓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특히 慶尙·全羅지역에서는 磁器所가, 慶尙·全羅·忠清지역에서는 陶器所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도자기 생산이 남한지역에서 번성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교통로가 발달되지 못했던 당시로서는 도자기를 생산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남한일대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왜냐하면 그것을 生産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입지조건, 즉

7) 한글학회지은 한국지명총람 5 경북 편, 한글학회, 1978, p. 187.
8) 尙州市·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尙州市文化遺蹟分布地圖, 2002, p16.
9) 『世宗實錄』의 부록인 地理志에는 각 지방의 토산품물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 土産條에 보면 토산품물을 제작하고 있던 관아를 중심으로 그 위치를 동·서·남·북으로, 磁器 및 陶器의 제작수준을 상·중·하로 기록하고 있다.

충분한 물과 수목, 기상조건 그리고 가장 중요시되는 흙의 질 및 채취량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世志』의 기록에서 주의하여 볼 것은 上·中·下品の 구분이다. 전국에서 上品을 생산하였다고 기록된 곳은 네 곳으로서 京畿道 廣州, 慶尙道 尙州와 高靈이다. 상주는 上品을 생산한 곳이 두 곳으로 무려 반을 차지한다.

2-1-2. 『慶志』의 자료

그 序文을 보면 다음과 같다.

“永樂 二十二年 甲辰冬 十有二月 朔壬寅 春秋館受教慶尙州道 部縣 歷代官號 邑名沿革及離合 令戶曹 移關各道…… 乙巳冬 十有二月朔日內寅監司 晉陽河淵演亮識”¹⁰⁾

永樂 22년이라 함은 世宗 6年(1424)년을 말한다. 즉 『慶志』도 『世志』와 동년 대에 자료를 수집하고 찬술하였다는 사실을 말한다. 戶曹¹¹⁾에서는 각 도에 『慶志』의 찬술요령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고 있다.

“一依例卜定貢賦 某某物 其土所山 某某物 是如施行爲乎矣 土產 金銀鐵銅 …… 磁器陶器 …… 并以詳悉施行事”¹²⁾

여기서 「卜定貢賦」란 「貢賻詳定都監」¹³⁾에서 작성한 「貢案」이지만, 그 貢案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토산물(某某物)이 각 州, 縣에서 생산되고 어떤 종류의 토산공물을 수납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낱낱이 수록하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찬술된 지리지의 토산 공물 조에는 경상도내의 25개 주현에서 자기 혹은 사기를, 21개 주현에서 도기를 「토산공물」로 기록하고 있다.

[표 2] 『慶志』의 陶磁器 土產品物 收納比較表

區分	品目	磁 器					沙 器				
		府	郡	牧	縣	小計	府	郡	牧	縣	小計
地域別	慶州道	2	2	-	3	7	-	2	-	-	2
	安東道	1	1	-	2	4	-	-	-	1	1
	尙州道	1	2	1	4	8	-	-	-	-	0
	晉州道	2	2	1	-	5	-	-	-	-	0
計		6	7	2	9	24	-	2	-	1	3

區分	品目	陶 器					計	府郡牧縣
		府	郡	牧	縣	小計		
地域別	慶州道	1	2	-	1	4	13	11
	安東道	1	1	-	4	6	11	8
	尙州道	1	2	2	6	11	19	14
	晉州道	-	-	1	1	2	7	6
計		3	5	3	12	23	50	39

出處: 『慶志』, 「陶磁器 土產品物」條.

10) 『世宗實錄』卷 二十六., 六年 十一月 丙戌條.

11) 貢賦 戶口 錢糧 食貨 등을 관장하는 중앙관서를 말함.

12) 『慶尙道地理志』慶州道 慶州牧條.

13) 太宗元年(1392)에 각 지방 특산물의 貢賦를 책정하기 위해 설치한 監視官衙로 태종원년에 공안을 완성하였음.

[표 3] 『慶志』의 陶磁器 土產品物 地域別收納現況

道別	磁 器	沙 器	陶 器	備考
慶州道	慶州府 密陽郡都護府 梁山郡 蔚山郡 慶山縣 昌寧縣 靈山縣	興海君 彥陽郡	密陽郡都護府 蔚山郡 淸道郡 解顔縣	13 個所
安東道	順興郡都護府 永川郡 仁同縣 義興縣	義城縣	順興郡都護府 醴泉郡 盈德縣 仁同縣 義興縣 新寧縣	11 個所
尙州道	中牟縣 功城縣 星主牧官 善山郡都護府 陝川郡 金山郡 高靈縣 軍威縣		尙州牧官 中牟縣 丹密縣 星主牧官 善山郡都護府 草溪郡(黃陶器) 金山郡 閉寧縣 咸昌縣 龍宮縣 軍威縣	19 個所
晉州道	晉州牧官 金海郡都護府 昌原郡都護府 咸安郡 昆南郡		晉州牧官 居昌縣	7 個所
計	24個所	3個所	23個所	50 個所

出處: 『慶志』, 「土產品物」條.

그런데 『世志』와 『慶志』양 지리지의 도자기소와 도자기토 산공물은 거의 일치한다. 즉 전자에 도자기소가 있는 고을에는 후자에도 반드시 陶磁貢物이 기록되어 있고, 전자에 자기소만이 있는 고을에는 후자의 경우 磁器貢物만을 기록해 놓았다. 이러한 사실은 두 지리지의 자료가 서로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거의 동년 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戶曹에서 그의 撰進을 지시한 내용으로 보아 地租, 貢賦, 및 搖役의 收納源을 확보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1-3. 『續誌』의 자료

『續誌』는 『世志』 및 『慶志』양 지리지보다 약 반세기 후인 예종 원년(1469년 6월)에 찬술되었으며, 『世志』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되었다. 전·후자는 동일한 방법으로 기록되었으므로 특히 자기소의 폐쇄시기와 함께 경영적 성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여기에서는 所在州郡縣別 品質의 上·中·下만 기록하고 있다.

[표 4] 『續誌』의 陶磁器所

區分		慶州道				安東道				尙州道			
		上	中	下	無	上	中	下	無	上	中	下	無
磁器所	品別	0	5	7	0	0	1	2	0	0	1	5	0
	小計	12				3				6			
陶器所	品別	0	1	12	0	0	0	6	1	0	0	5	0
	小計	13				7				5			
計		25				10				5			

區分		晉州道				計			
		上	中	下	無	上	中	下	無
磁器所	品別	0	1	7	0	0	8	21	0
	小計	8				29(38)			
陶器所	品別	0	0	6	0	0	1	29	1
	小計	6				31(34)			
計		6				60(72)			

出處: 『續誌』, 『土産品物』條.

計부분의 ()안은 『世志』의 경상도 소재 도자기소임

『世志』와 『續誌』에 기록된 경상도 소재 도자기소의 수는 무려 12곳이나 차이난다. 즉 磁器所의 경우 전자에서 존재했었던 37개소가 후자에서는 27개소로 10개소가 없어졌으며, 陶器所의 경우 전자에서 34개소이었던 것이 후자에서는 31개소로 3개소가 사라졌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도합 12개의 자기소가 폐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록상의 자기소가 줄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상품을 생산하던 자기소 또한 모두 없어졌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상·중·하별로 알아보면 [표 5]와 같다.

[표 5] 『世志』 『續誌』 磁器所의 數量的 比較

區分	『世志』慶尙道條磁器所	『續誌』磁器所
品上	3	無
品中	8	8
品下	26	19
計	37	27

[표 5]에서 品中의 경우는 양 지리지 모두 같다. 그러나 品上의 경우 『세지』에서 3개소이었던 것이 『속지』에서는 전부 없어졌고, 品下의 경우 6개소가 없어졌다. 즉 上品을 생산했던 중모지역의 2개의 자기소가 없어졌고, 노산리에 品中 단 1개소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역시 1品을 생산했던

고령현의 경우 下品로 격하되었다. 특히 상주목과 고령현의 경우는 중앙으로부터 간접통제를 받는 지역이어서 왕조의 구조적 모순이 더욱 많이 작용할 수 있었던 지역이다. 이 시기에 우하리 요지는 품 하로 격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그 운영 시기는 15세기 초·중반까지로 볼 수 있으며, 생산수준이 격하되었던 이유는 판어용 자기를 수납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애 즉 지나친 강제생산·수납으로 말미암아 급기야는 폐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 「지리지」(1424~1432년)의 상주목 토산조의 기록에는 세 곳의 자기소와 두 곳의 자기소가 있으며, 자기소와 도기소의 품질은 상·중·하로 구분되어 표시되었다. 즉,

“상주목에는 자기소가 셋이니, 하나는 중모현 북쪽 추현리에 있고 상품이다. 하나는 중모현 동쪽 이미외리에 있고 상품이다. 하나는 공성현 서쪽 원동에 있는데 중품이다. 도기소는 둘이니 하나는 주 서쪽 벌을야리에 있고 하나는 단밀현 단곡에 있는데 모두 하품이다.(磁器所三 一在中牟縣北楸縣里品上 一在中牟縣東已未隈里品上 一在功城縣西院 洞品中 陶器所二 一在州西伐乙夜里 一在丹密縣丹谷皆品下)”

위의 기록에 나타난 자기소 세 곳의 위치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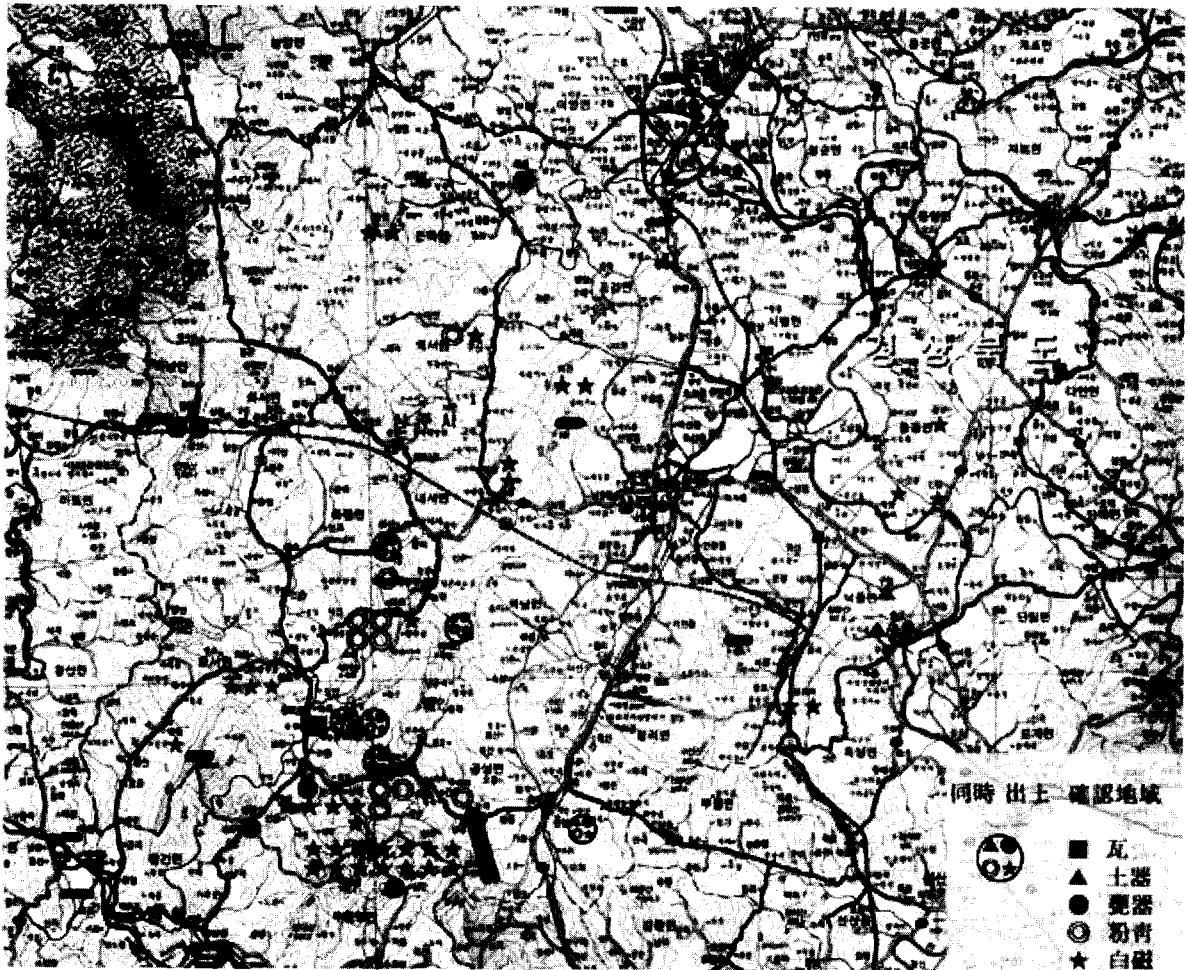
- ① 중모현 북쪽 추현리(상품) → 화동면 어산리
- ② 중모현 동쪽 이미외리(상품) → 모동면 상판리 상판저수지 주변일대¹⁴⁾
- ③ 공성현 원동(중품) → 공성면 우하리¹⁵⁾

우하리는 [표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 지리지에 기록된 중품 생산지 8곳 중의 한 곳으로 여전히 그 시기에 남아 있던 요지임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전국의 자기소 139개, 도기소 185개 중에서 상품의 자기를 제작한 곳은 전국에 네 곳 밖에 없다. 즉, 경기도 광주의 번천리(벌을천), 고령의 사부동과 기산동(예현리), 그리고 상주의 상판리(이미외리)와 어산리(추현리)이다. 그러므로 세종 당시 상품자기의 50%를 상주에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지역의 가마터들은 도굴꾼의 도굴장소만 되고 있을 뿐, 가마터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광주의 번천리(국가사적314호)와 고령의 사부동·기산동(국가사적 71호, 72호)의 가마터가 세종 당시의 상품 자기소임이 확인되어 각각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것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2-2. 지명고증의 근거

우하리 窯址의 지명고증을 위한 여러 기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4) ①, ②는 김세광의 「前掲書」에서 考證
15) 다음의 지명고증 참조



[그림 1] 상주지역의 요지별 분포지도

2-2-1. 『世宗實錄』 「地理志」

- ① “...중모현(中牟縣)은 본래 도량현(刀良縣)인데 경덕왕이 도안(道安)으로 이름을 고쳐서 화령군(化寧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 ② “...공성현(功城縣)은 본래 신라 대명부곡(大井部曲)인데 고려에서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 ③ “...봉화(烽火)가 여섯 곳이니, 공성 회룡산(回龍山)은 현 서쪽에 있다. 남쪽으로는 금산(金山) 소산(所山)에 응하고 동쪽으로는 청리(靑里) 서산(西山)에 응한다...”
- ③의 내용에서 회룡산 봉수대의 기록은 현재 우하리 양촌마을 뒷산인 봉우산(해발541.9m)에 남아 있는 봉수대 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¹⁶⁾ 봉우산에는 우하리 양촌 마을로 내려가는 봉우재와 북쪽의 회룡리로 내려가는 봉골이라는 골짜기가 있어 지금의 봉우산이 『世宗實錄』 「地理志」 당시의 회룡산임을 추정할 수 있다. 회룡과 우하리 두 마을은 지금도 당시 중모현 이었던 모동면과 동쪽 경계를 이루는 공성면의 서쪽 경계이다.

2-2-2. 朝鮮後期地方地圖 慶尙道篇¹⁷⁾

중모현은 모동면(牟東面)과 모서면(牟西面)으로, 공성현은 공동면(功東面)과 공서면(功西面)으로 분리되었으나 지방의 각

군현에 설치된 창고(倉庫)는 두 개의 면으로 분리되기 이전의 지명인 중모현과 공성현의 이름을 따라 중모창(中牟倉)과 공성창(功城倉)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면과

공서면 두 지역이 이전의 공성현 지역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위에는 살펴 본 『세종실록』 「지리지」 상주목의 공성현 서쪽의 회룡산 봉화가 18세기 후반에는 공서면의 서쪽에 있는 회룡산과 인접해 있는 용산봉대(龍山峰臺)로 표기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실록』 「지리지」 공성현 서쪽의 원동은 조선후기 지방지도에 표기된 공서면의 서쪽 용산봉대 근처임을 추정 할 수 있다.

2-2-3. 商山地圖

이 지도는 1830년 다산 정상우(茶山 鄭祥隅)에 의해 제작된 상주전도(尙州全圖)이다. 정상우는 1830년에 절충장군으로서 상주진영장으로 부임하여 이 지도를 제작하였다. 산상지도에는 산천과 부락을 상세하게 그리고 사적지와 호수, 거리 등을 명시하였는데, 공성현의 서쪽 봉산암(峰山菴) 아래에 우하(于下)가 표기되어 있어 현재의 우하리의 지명이 최소한 1830년부터는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지명고증에서 알아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16) 상주문화원, 『尙州文化遺蹟』, 1996, pp.236 ~ 237

17) 18세기 후반 제작

3. 기존연구에 근거한 우하리 출토자료 고찰

일반연구¹⁸⁾에서는 14세기 이후의 가장 특징있는 생산품으로 분청사기를 말한다. 분청사기는 청자의 번조방법과 같은 환원기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현재의 도자요지 관련 보고서들에서는 분청사기로 혹은 청자로 표현하기도 한다.¹⁹⁾ 분청사기에 대한 관심은 1910년대 朝鮮總督府의 古蹟調査事業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고조되었다. 그 결과 1915년부터 약 20여 년에 걸쳐 『朝鮮古蹟圖譜』가 출간되고 1935년 第 15 冊으로 분청사기와 백자가 수록된 도록이 발간되어 오늘날까지 이용되고 있었다.

기존의 자료와 연구들 가운데 요지로 밝혀진 기초 자료들을 활용하여 14세기이후에 나타나는 자기별 생산을 추이를 보면 다음의 <표 6>와 같다.

[표 6] 14~16세기 자기별 생산의 증감추이

종류 \ 시기	14世紀	15世紀	16世紀	備考
靑磁類	107	41	23	
粉靑類	20	279	169	
白磁類	40	110	135	
陶器類	?	?	?	
計	154	430	327	

전체적으로 볼 때, 14~16세기의 변화는 154단위→430단위→327단위로 생산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자기별로는 청자가 107→23단위로 감소되는 반면, 분청사기는 20→279→169단위로 대폭 증가추세로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백자의 경우는 40→110→135단위로 그 생산의 꾸준히 상승하였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분청에 있어서 15세기의 279단위에서 169단위로 총 110단위 생산이 감소되고, 백자에 있어서 15세기의 110단위에서 16세기의 135단위로 총 25단위 생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에 서서히 분청이 백자로 대체되어 갔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姜敬淑²⁰⁾에 의하면 분청사기는 14세기 후반부터 퇴락해 가던 상감청자에서 변모 발전하여 15세기에 완성되는 도자기이다. 14세기말~15세기 초의 분청사기 태토(胎土)는 수비(水飛)가 잘 안되고 잡물과 철분의 함유가 많아 표면이 黑灰色을 띠었으나 차츰 정선된 灰靑色의 경질(硬質)태토로 발전한다.

분청사기를 만들 때 어떤 지방에서 어떤 종류의 점토를 사용하느냐, 또한 어떻게 점토를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태토의 질과 표면색상에 큰 차이를 보인다. 粉靑沙器 胎土의 화학적 성분은 天然産의 二次粘土(secondary clay)로서 미세한 含水硅酸礬土(SiO₂, Al₂O₃, H₂O)의 鑛物이고 대표되는 化學式은 高嶺土와 같이 Al₂O₃, 2SiO₂, 2H₂O이며 微粉末에 濕分을 가하면 可塑性(plasticity or workability)이 생기며 건조하면 剛

성을 낸다. 粘土에는 一次粘土(primary clay)와 二次粘土가 있으며, 一次粘土는 母岩의 원위치에 분해되어 그대로 남아 있는 粘土로 母岩의 未分解物인 石英粒자와 雲母의 粒子가 함유되어 있고, 二次粘土는 母岩의 원위치로부터 물에 씻겨 내려 낮은 곳으로 이동되면서 沈積한 것으로서 一次粘土에 비하여 微粒이며 비교적 可塑性이 양호하다. 粘土의 종류에는 一次粘土에 가까운 蛙木粘土, 二次粘土의 대표인 木節粘土, 벤토나이트(bentonite), 고령토(kaolin) 등이 있다. 특히 木節粘土는 可逆性이 양호한 것이 특징이며 나무와 같은 부패된 有機物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炭白色으로부터 黑白色을 띠며 脂肪感이 있다. 燒成하면 灰白色 내지 灰靑色이 되며 含有된 有機物로 인하여 燒成收縮이 크다²¹⁾ 천연유의 사용은 고려시대부터이며, 분청유약도 청자유 계통이나 청자유보다는 철분의 함량이 적어 炭靑이나 靑色을 띠는 예가 많다. 물론 이와 같은 유조는 태토에 함유된 발색물질인 산화철(Fe₂O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분청사기의 표면색조는 태도와 유약의 성분관계 뿐만 아니라 소성(燒成), 즉 산화염(酸化焰)상태인가, 환원염(還元焰)상태인가에 따라 灰靑 혹은 회황색을 나타낸다. 회청 색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대략 조선조의 정치, 경제, 문화가 안정되는 세종 대이다. 그러나 15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희뿌연 반투명의 유조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분청사기의 유약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生釉로서 長石(feldspar), 松灰(pineash), 石灰石(limestone), 粘土(clay)의 조합이며 그 주성분은 장석이다. 분청사기 유약에 가장 가까웠던 조합은 용인장석, 松灰, 驪州粘土를 25 : 5 : 2 혹은 25 : 6 : 2의 비율에 기타 粘土를 첨가시켰을 때 가장 근사한 투명한 분청유약이 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²²⁾ 일반연구에서는 대개 분청사기의 발생을 도자양식상 퇴조해 가는 고려청자상감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듯하며, 서민적인 생활용기로 발전되어 갔음을 강조한다. 12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던 청자기술은 13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당시의 政治的狀況과의 관련과 元의 영향으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었다. 고려시대의 전통 위에서 新王朝의 도자기는 전혀 새로운 미의 방향이 추구되어 서민적이고 자유분방하며 활발한 생활용기로 발전해 가니 이것이 곧 분청사기이다²³⁾. 우하리의 자편들의 대부분은 분청사기로서 14~15세기에 생활에 필요한 자기를 생산하던 곳이다.

이와 같은 생활용기의 출현배경은 다음과 같다. 즉 12세기 후반 무신란 이래 고려 귀족사회는 서서히 변질하여 갔고, 13세기 후반 元과의 관계로 북방 문화요소가 가미되었으며, 14세기에 들어서는 지방향사(鄕士)와 평민층으로부터 성장한 신흥사대부와 무인세력이 중심이 되어 조선왕조가 성립된다.²⁴⁾ 특히 世宗의 집현전 설치²⁵⁾는 모든 문화의 産室로서

18) 여기에서 일반연구라 함은 경제사학적인 연구 이외의 기타부문의 연구범위를 말한다. 즉 미술사학적 측면이 강한 민속 사학적, 문화학적, 그리고 역사학적 등의 연구들을 지칭한다.

19) 이 시기에 생산된 청자상감, 인화, 귀얄 등은 청자의 일종인 분청사기이다. 우리나라의 전통도자는 거의 환원번조에 의해 구워진 것이다.

20) 姜敬淑, 『前掲書』, p. 13.

21) 趙奉煥, 『陶磁器工業』, 理工圖書出版社, 1981, pp. 23-26.

22) 李姬先, 『粉靑沙器의 製造工程 및 分析實驗』,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5, pp. 34-36.

23) 姜敬淑, 『前掲書』, p. 16.

24) 鄭杜熙, “高麗末期의 添設職”, 『農權學報』 第44號, 農壇學會, 1977, pp. 3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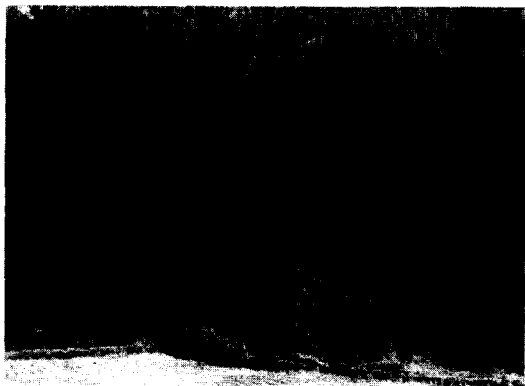
25) 姜敬淑의 前掲書에서는 世宗期의 文化的基盤에 대하여, “그러므로 보다 광범한 사회적 기반을 가진 사회계층의 형성으로 高麗貴族文化가 자취를 감추고 특히 15세기 조선조에서는 在地兩班勢力인 士林派

조선왕조의 정치이념인 性理學을 현실에 반영시키며 왕권강화를 다지는데 큰 의의를 지녔던 것이다. 1424~1432년 사이의 『世宗實錄地理志』의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도 土產貢物을 위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했던 까닭이고, 이것은 바로 왕권강화 및 국가권력안정이라는 문제와 직결되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왕권의 안정은 곧 문화의 성장을 가져왔다. 오늘날 기록으로 남아 있는 각 地理志 등의 문헌자료는 당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던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 자료와 그동안의 연구결과 및 실증자료를 고찰해 본다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4. 유물의 실증적 고찰



[그림 2] 전경



[그림 3] 전경

가 書院과 鄉約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粉靑沙器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조선왕조를 개창한 이성계 및 개국공신들은 처음 고려의 유제를 따랐으나 3대 태종 때 고려의 유제를 대폭 개혁하여 왕권강화에 박차를 가한 결과 문물제도가 완비되어 조선왕조 500년의 제도적인 기반이 닦였다. 그러므로 1418년에 즉위한 세종이야말로 닦여진 기반과 제도 위에서 민족문화의 기틀을 정립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고 설명한다.



[그림 4] 전경



[그림 5] 전경



[그림 6] 전경



[그림 7] 대접



[그림 8] 대접 그림 7의 굽



[그림 9] 대접



[그림 10] 대접 그림 9의 뒷면



[그림 11] 대접 그림 9의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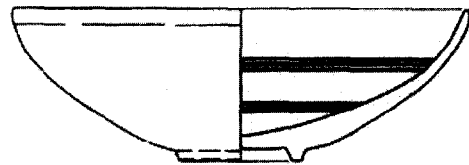


[그림 12] 합

4.1. 유물의 실측도면

분청사기 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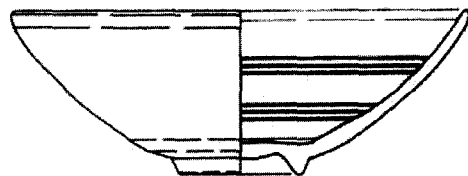
[그림 13] 그림 7의 복원



높이 : 7.05cm, 복원구경 19.7cm, 저경 : 5.4cm, 내저원각형 : 6.6cm.

기형의 1/3정도 잔존. 담회청색의 유조로 비교적 발색이 좋다. 유약은 전면에 고르게 시유되었는데 빙얼이 많다. 굽은 대마디 굽이고 번조받침은 태도 빛음이다. 태도는 정선이며 내측면 2곳에 3조의 중권문이 돌아간다. 구연은 내만 직립하고 내저면에 내저원각이 있다.

분청사기 대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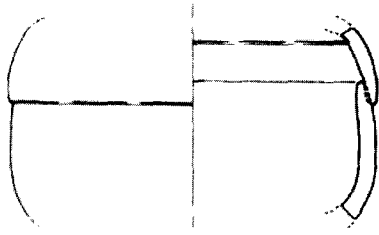


[그림 14] 그림 9의 복원

높이 : 6.25cm, 복원구경 18.9cm, 저경 : 5.2cm

구연과 동체 일부 결실되었으며 담녹청색의 유조로 발색이 균일하다. 유약은 전면시유이며 부분적으로 표면에 빙얼이 있다. 굽은 다리굽이고 번조받침은 태도 빛음이다. 굽에는 모래가 부착된 것으로 보아 최하단의 번조품으로 추측된다. 소지는 약간 잡물 혼합된 정선된 점토(회색)이고 내측면 2곳에 3조의 중권문이 있다. 구연은 내만 직립한다.

분청사기 합



[그림 15] 그림 12의 복원

현고 : 합신 - 6.2cm, 합개 - 3.3cm, 복원구경 : 합신 - 15.4cm, 합개 - 16.5cm.

합신과 합개 일부는 구연과 동체편이다. 담회청색의 유조를 띠며 표면에는 빙열과 기포가 보인다. 문양 : 합신 - 중권문과 구연부쪽 긴자문사이 측면에 날개의 국화문이 주문양대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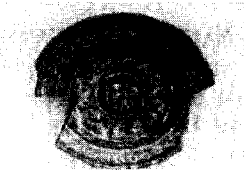
합개 - 구연부쪽에 한 줄의 긴자문대를 두고 그 안쪽으로 국화문과 긴자문대가 있다. 백토는 약간의 잡물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회색)했다.



[그림 16] 膳 표기 명문



[그림 17] 대접



[그림 18] 대접



[그림 19] 대접

5. 우하리窯址의 현황과 경영적 특성

5-1. 조사경위 및 현황

필자는 학술연구를 위해 상주 공성 우하리 일대의 분청사기 가마터를 조사하던 중 현존하는 새로운 가마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때 도굴로 인해 이미 가마터가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지만, 가마터의 보존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²⁶⁾하고 상주시청의 협조를 받아 응급조치를 하게 되었다.

26) 초기조사는 이미 2001. 5. 20.(일), 실시되었다. 현지조사 실시 결과 약2주일 전에 가마터의 퇴적층이 도굴로 인하여 파괴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상주시청 문화공보과 사실을 알리고, 상주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의 중요성을 관계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게 된다. 파괴된 우하리 가마의 보호를 위해 먼저 호터라진 도편을 수습한 후, 심각하게 파헤쳐진 곳은 상주시청 문화공보과의 도움을 받아 파괴된

유적이 위치한 우하리 37번지 일대는 장수 황서 문중의 소유로서, 가마터는 약 20여 년 전에 저수지와 논을 개간하면서 가마유구가 노출되고 도편이 호터라졌다고 한다. 또한 수로를 내는 과정에서 가마유구가 거의 파괴되었고 현재는 가마의 끝부분 일부만이 남아 있다. 심하게 파괴된 가마유구에 비해 퇴적층의 상태는 비교적 잘 남아있었다고 판단되는데, 바로 이 퇴적층이 최근에 여러 차례 도굴되어 파괴되었다. 가마의 퇴적층이란 불량품이 버려져 쌓인 도편 층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요업의 모든 정보를 간직하고 있는 유적을 말한다.

5-2. 경영적 특성

출토 자편들의 대부분은 生活容器들이다. 특히 “膳”자가 혹은 상감 된 대접편이 출토되었다는 것은 더욱 명백한 연구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 즉 우하리 요지가 세종 당시(1420년대) 음식을 관장하는 중앙 관청의 하나인 사선서(司膳署)에 공납(貢納)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우하리는 세종 당시의 중품생산지인 공성현 원동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품사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지일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사 및 도자수공업사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자편의 종류는 사발, 접시, 종지 등의 생활용기이다. 상품생산지인 어산리 상판리 일대의 자편들에 비해 다소 질이 떨어지는 듯 하나 우수한 자기를 생산했던 자기소였음은 분명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를 증명하는 명문이 출토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원(司饗院)은 고려 목종(제 7대 998~1009)이래 상식국·사선서 등으로 불려지면서 왕실의 음식물을 조리·공급하는 관사로서 존재하였던 곳이다. 사용원의 소임에 대해서 『經國大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용원은 대궐 내의 어선과 어궐을 관장하는 중앙 관사로서 다음과 같은 관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都提調 1명, 提調 4명, 副提調 5명, 提舉·提檢 각 4명, 主簿 1명이 상주하며, 이 밖에 대궐 내의 식사일을 담당하는 飯監 등 390여명의 각급 差備(賤役)가 있다”²⁷⁾

위의 자료에서와 같이, 司饗院의 소임은 결코 官御用陶磁器를 생산하거나 지방관요(官窯)를 통괄하기 위한 官司가 아니라 대궐 내의 식사일을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따라서 “우하리 요지에서 생산된 자기(그릇)를 중앙관서인 사용원에 공납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퇴적층에 흙주머니를 만들어 채움으로써 응급조치를 하였다. 노출된 도편은 수습하여 분류하고 자연과학적 분석을 위해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공예디자인학과 도자기실습실에 임시 보관하였다.

27)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條 및 刑典, 關內差備.

6. 결론

이상에서 『세종실록』 《지리지》의 중품이라고 추정되는 우하리요지의 출토자료 및 사료를 분석하였다. 우하리는 세종 당시 중품생산지인 공성현 원동으로 추정됨에 따라 중품자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지일 뿐만 아니라 한국도자수공업사의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출토 자편들의 대부분은 生活容器들이다. 특히 “膳”자가 흑상감된 대접편이 출토됨으로서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즉 우하리 요지는 세종 당시(1420년대) 음식을 관장하는 중앙 관청의 하나인 사선서(司膳署)에 공납(貢納)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經國大典』
- 『慶尙道地理志』
- 『慶尙道續撰地理誌』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尙山誌』
- 『世宗實錄地理志』
- 姜敬淑, 『粉靑沙器 研究』, 一志社, 1987.
- 金光光, 『尙州의 陶磁生産과 窯址』, 尙州文化叢書第3輯, 1999.
- 高裕燮, “高麗陶磁와 李朝陶磁”. 韓國美術史 及美學論功, 1963.
- 『高麗靑磁』, 三星文庫, 1976.
- 古로역사연구소, 『바로보는 우리역사』, 기림출판사, 1991.
- 白南雲, 『朝鮮封建社會經濟史』, 이론과 실천, 1994.
- 李姬先, 粉靑沙器의 製造工程 및 分析實驗, 梨花女子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5.
- 尹龍二, 『韓國陶磁史研究』, 문예출판사, 1994.
- 이호철, “朝鮮時代의 人口規模 推計”, 農業經濟史研究 慶北大出版部, 1992.
- 尙州文化院, 『尙州文化遺蹟』, 1996.
- 趙奉煥, 『陶磁器工業』, 理工圖書出版社, 1981.
- 鄭杜熙, “高麗末期의 添設職”, 震檀學報 第44號, 震檀學會, 1977.
- 홍희유, 『조선중세수공업사 연구』, 오월사, 1988.
- 崔淳雨, “韓國靑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 『韓國美術 2000年 (靑磁)』, 文公部編, 1973.
- 『韓國美術全集』3 (土器, 土偶, 瓦塼), 同和出版社, 1974.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尙州 靑里遺蹟 發掘調査 概報Ⅱ, 1997.4.
- 尙州市·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尙州市文化遺蹟分布地圖, 2002.
- 한글학회지은 한국지명총람 5 경북 편, 한글학회, 1978.
- 北村秀, “高麗時代의 所制度について”, 朝鮮學報 第 50輯, 1969.
- 野守建, 『高麗陶磁の研究』, 清 舍, 1994.
-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Random House, 1973.
- E.H. Carr, 『WHAT IS HISTORY?』, The University of Cambridge, 1961.
- W.H. Walsh,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of History』, London :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1967.